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24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녹지정책과	담 당 자	• 녹지정책팀장 김 영 미 ☎440-3661 • 담당자 채 미 숙 ☎440-366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w Green City 3000만그루 나무심기’ 8부 능선 넘어
- 인천시, 푸른 도시숲 조성으로 기후위기 대응 -
- 2016년도부터 추진 … 현재까지 2,484만 그루 식재 · 목표량의 83% 달성 -

인천시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New Green City 30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8부 능선을 넘으면서 예정대로 2025년 사업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기준 2,484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 목표량의 83%를 넘어섰으며, 올해 300만 그루를 목표로 시를 비롯해 10개 군·구에서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나무심기는 국제사회가 인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2016년 파리협정 발표 이후 국제사회와 주요국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연합에서는 10년간 30억 그루 나무심기 전략, 캐나다는 10년간 20억 그루 나무심기를 목표로 세웠다.

인천시도 2016년부터 지속가능한 푸른 도시숲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나무심기 사업, ‘New Green City 3000만그루 나무심기’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2016년 당시 인구수는 298만 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했고, 인구 1명당 1그루 나무심기를 10년간 추진한다는 목표로 3천만그루라는 나무심기 목표가 설정됐다.

2016년부터 7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전체 목표량 3000만그루 대비 2484만그루로 목표량의 83%를 달성했다.

나무심기 사업은 가로녹지 확충, 생활권 공원녹지 확충, 쉼터조성, 조림, 대지안의 조경, 개발사업에 충분한 녹지면적 확보 등 민·관이 함께 이뤄 내는 사업이다.

또한 미세먼지에 민감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자녀안심그린숲 조성과 학교숲 조성으로, 실내 녹지공간 제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 조성, 스마트가든 설치 등 특색있는 사업으로 발전 진화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올해 목표 300만그루 나무심기 달성을 위해 나무심기 사업을 시작했다. 단순히 식재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조성된 숲이 시민의 삶에 녹아 어우러질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허흥기 시 녹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 향상·열섬현상 완화 등의 순기능을 가진 나무심기는 인천의 미래를 심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며 “3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식목일 행사에서 시민들이 함께 나무를 심고있다]